

TIPLONews 한국어본

2025 년 12 월호(K316)

이달의 주제

K251117Y1

K251117Z1

01 대만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 지식재산권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및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

대만 경제부 산하 지식재산국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이스라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MOTTAINAI)와 대만-이스라엘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두 건이 2025 년 11 월 17 일 제 15 차 대만-이스라엘 경제기술 협력회의에서 체결될 예정이며, 이로써 대만과 이스라엘 간 지식재산권 협력 및 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의 이번 특허심사 하이웨이 협정 체결로 대만은 미국, 일본, 스페인, 한국, 폴란드,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여덟 번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파트너 국가를 확보하게 되었다. 대만-이스라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은 2026 년 1 월 2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대만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특허 출원에 대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서로의 검색 및 심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양국 출원인의 특허 획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과 이스라엘은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향후 양측은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등 협력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 사이버 보안, 의료, 생명공학 및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과 대만의 반도체 및 통신기술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만 지식재산국은 항상 기업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왔다. 이번 대만과 이스라엘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및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는 양측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양국의 특허 출원인들이 더욱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양국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2025.11)

역주:

- 1) 대만 지식재산국은 원문 智慧財產局의 의역으로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해당

TIPLO
Attorneys-at-Law

K251117Y1

02 대만 지식재산국은 「2024 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대만의 발명 특허 출원 현황 비교 분석」을 발표

대만 경제부 산하 지식재산국 ¹⁾은 2025 년 11 월 17 일 「2024 년 WIPO ²⁾와 대만의 발명 특허 출원 현황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 년 WIPO 는 약 273,900 건의 특허협력조약(PCT) ³⁾ 발명 특허 출원을 접수했는데, 이는 2023 년 대비 0.5%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대만은 50,823 건의 출원을 접수하여 2023 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0.1%)을 기록했다. 이는 대만의 혁신 역량이 견고하며 전반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WIPO 와 대만은 각각 중국과 대만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발명 특허 출원을 접수

2024 년에 WIPO 에 PCT 특허출원을 제출한 국가(지역)은, 중국이 70,160 건을 제출하며 연속으로 세계 1 위를 유지했고, 그 뒤를 미국(54,087 건), 일본(48,397 건), 한국(23,851 건), 독일(16,721 건)이 이었다. 중국의 출원 건수는 0.9% 소폭 증가한 반면, 한국은 7.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은 1.2%에서 2.8% 감소했다.

대만에서는 국내 출원인이 가장 많은 발명 특허를 출원(19,586 건)했으며, 그 뒤를 일본(12,307 건), 미국(6,817 건), 중국(3,472 건), 한국(3,365 건), 독일(1,035 건)이 이었다. 대만 출원인의 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큰 변동이 없었지만(-0.2%), 일본과 중국은 각각 1.6%와 8.8% 감소했고, 미국, 한국, 독일은 1.3%에서 8.5% 사이의 증가세를 보였다.

2. 「디지털 통신」은 WIPO 발명 특허 출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술 분야가 되었으며, 「반도체」는 대만에서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기술 분야이다.

2024 년에는 「디지털 통신」이 WIPO 발명 특허 출원 건수에서 10.5%를 차지하며 최대 기술 분야로 등극했다. 이는 「컴퓨팅 기술」(9.7%)과 「전자기계 동력 장치」(8.6%)를 넘어선 수치였다.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디지털 통신」의 비중은 8.3%에서 10.5%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특허

출원자들이 글로벌 특허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자기계 동력 장치」 역시 6.6%에서 8.6%로 빠르게 증가하며, 세계적 차원의 기술 융합 추세를 반영하였다. 한편, 「컴퓨팅 기술」은 2020 년 9.2%에서 2022 년 10.4%로 증가한 후 매년 소폭 감소하여 2024년에는 9.7%를 기록했다.

대만에서는 2024 년에도 「반도체」(15.1%)가 선두 자리를 유지했으며, 「컴퓨팅 기술」(8.2%)과 「전자기계 및 에너지 기기」(6.8%)가 그 뒤를 이었다.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반도체」의 비중은 11.9%에서 15.1%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대만의 중요한 위치를 보여준다. 한편, 「컴퓨팅 기술」은 9.9%에서 8.2%로 감소했고, 「전자기계 및 에너지 기기」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대만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특허 전략 수립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3. WIPO 에서 주요 국가 및 지역은 「디지털 통신」, 「컴퓨팅 기술」, 「전자기계 에너지 장치」 분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만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24년에는 중국(18.0%)과 한국(13.3%)이 WIPO 에 등재된 기술 분야 중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출원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은 「컴퓨팅 기술」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12.6%)을 기록했다. 일본(11.9%)과 독일(12.1%)은 모두 「전자기계 에너지 장치」에 집중했다. 추가 분석 결과, 2024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디지털 통신」 분야 출원 건수는 2023년 대비 모두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적 진전이 있었고 주요 국가들 간의 세계 시장 진출 경쟁이 치열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은 「전자기계 에너지 장치」 분야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배터리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024년에는 대만(15.7%), 중국(10.5%), 미국(14.6%), 일본(15.4%), 한국(29.1%) 순으로 「반도체」 분야가 대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독일은 「기초재료화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8.8%)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2024년에는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분야 비중이 2023년

대비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감소했고, 대만과 일본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중국은 「컴퓨팅 기술」 분야의 활용 비중이 증가하고 「제약」 분야의 활용 비중이 감소했다. 미국은 「컴퓨팅 기술」 분야의 활용 비중이 감소하였고 「제약」 분야의 활용 비중이 증가하여 각국이 각기 다른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WIPO 에서 특허출원건수 1 위는 중국의 화웨이(Huawei)가 1 위이었고, 대만에서는 대만의 TSMC 가 1 위

2024 년 WIPO 에 접수된 PCT 발명 특허 출원 건수 상위 10 개 기업 중 중국의 화웨이(Huawei)가 6,600 건으로 1 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4,640 건)와 미국의 퀄컴(Qualcomm)(3,848 건)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의 샤오미(Xiaomi)는 1,889 건의 출원으로 처음으로 상위 10 위권에 진입했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18.2%)와 중국의 샤오미(Xiaomi)(+17.8%)가 상위 10 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전기는 9.1% 감소했다.

대만에서는 TSMC 가 1,279 건의 출원으로 연속 1 위를 유지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1,013 건)와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Applied Materials) (864 건)가 그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의 ASML 은 355 건의 안건으로 처음으로 10 위권에 진입했다.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쿠팡이 85.4%라는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고, ASML(37.6%)과 삼성전자(35.6%)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TSMC 는 2023 년 대비 19.2% 감소했다.

5. WIPO 와 대만 특허 출원인들은 각각 「디지털 통신」과 「반도체」 분야에 집중

2024 년 WIPO 에 출원한 상위 10 개 기업의 기술 분야 분포를 살펴보면, 화웨이(Huawei)(중국), 삼성전자(한국), 퀄컴(Qualcomm)(미국), LG 전자(한국), 샤오미(Xiaomi)(중국), LM 에릭슨 (LM Ericsson)(스웨덴) 모두 「디지털 통신」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비중은 32.2%에서 89.9%에 이르렀다. 샤오미(Xiaomi) (중국)(96.2%)과 LM 에릭슨(LM Ericsson) (스웨덴)(89.3%)은 상위 3 개 기술 분야를 합친 비중이 각각 90%에 육박하여 매우 집중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의 각 기업별 비중(89.9%와 63.0%)은 서로 다른 전략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였다.

대만에서는 TSMC, 삼성전자(한국), 어플라이드머티즈(Applied Materials) (미국), 도쿄파워(Tokyo Electron)(일본), 난야테크놀로지(Nanya Technology)(대만) 모두 반도체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43.3%에서 79.9%에 이르렀다. 특히 TSMC(91.4%)와 난야테크놀로지((Nanya Technology)(93.7%)는 상위 3 개 기술 분야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반도체 분야에 고도로 집중된 사업 구조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쿠팡(한국) 역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주로 정보 관리 방식에 집중하고 있어, TSMC와는 다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025.11)

역주:

- 1) 대만 지식재산국은 원문의 智慧財產局을 의역한 것으로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해당
- 2) WIPO 는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의 두문자어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를 지칭한다.
- 3) PCT 는 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두문자어로 특허협력조약을 지칭한다.

Attorneys-at-Law

K251104Z5

K251104Z7

03 2025 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조사: 대만, 8 개 지표에서 세계 3 위권 진입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IMD)¹⁾은 「2025 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5, DCR)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대만은 전 세계 주요 69 개국 및 경제 지역 중 10 위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만 디지털 발전부²⁾는 순위 산정의 세 가지 영역 중 「미래 준비성」(Future readiness) 부문에서 대만이 세계 3 위를 기록하며 2024 년 대비 3 단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두 영역인 「기술」(Technology) 부문에서는 11 위, 「지식」(Knowledge) 부문에서는 16 위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대만은 8 개 지표에서 세계 3 위권 안에 들며, 특정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강점을 입증했다. 디지털 발전부는 보고서에서 지적된 취약한 지표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만이 디지털 발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발전부는 대만이 8 개 지표에서 세계 3 위권에 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며, 연구개발 역량, 고등교육 및 기업 민첩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 「IT 및 미디어 기업관련 주식 시가총액」(IT & media stock market capitalization) 부문에서 1 위를 차지했고, 「R & D 에 대한 공적 지출 (GDP 비율)」(Total expenditure on R&D (%)), 「인구 천명당 연구개발 인력」, (Total R&D personnel per capita) 그리고 「기업 민첩성」 (Agility of companies) 부문에서는 2 위, 「교육평가-PISA 수학 성적」(Educational assessment PISA - Math), 「25~34 세 고등교육 이수율」(Higher education achievement), 「기회 및 위협 대응 속도」(Opportunities and threats), 「빅데이터 및 분석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Use of big data and analytics) 부문에서는 3 위를 기록했다.

IMD 순위는 「지식」, 「기술」, 「미래 준비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하며, 이 세 가지 기준에는 9 개의 하위 부문과 61 개의 지표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고, 탐구하고,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 상태를 평가한다.

디지털 발전부는 「지식」 부문이 주로 평가 대상 국가의 신기술 학습 능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세계 16 위를 기록하며 2024 년보다 3 단계 상승했다.

한편, 「GDP 대비 연구개발 총지출 비율」(Total expenditure on) 부문은 여전히 1 위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개발 총지출 비율(%)」(Total expenditure on R&D (%)), 「고위 관리자의 해외 경험」(International experience), 「국내 고속권 인재 유치 기업 환경」(Foreign highly-skilled personnel), 「전체 고용 대비 과학기술 분야 고용 비율」(Scientific and technical employment), 「기업의 직원 교육」(Employee training), 「여성 학사/석사 비율」(Women with degrees) 등 부문의 지표 순위가 모두 상승하여 대만이 교육 및 고용 단계 모두에서 디지털 및 기술 인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발전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청년 인재 양성 및 융합 분야 인재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며, 해외 디지털 전문가 채용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디지털 인재를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기술」 부문은 국가의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만은 세계 11 위를 기록했다. 「기술 개발 및 적용」(Development & application of tech.), 「과학 연구 관련 법률」(Scientific research legislation), 「기술 개발 자금 지원」(Funding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GDP 대비 통신 투자 비율」(Investment in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통신 기술(음성 및 데이터)」(Communications technology) 등의 지표에서도 개선이 나타나, 정부가 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5G 네트워크 구축 및 적용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인공지능(AI) 붐에 대응하여 디지털 발전부는 AI의 발전과 활용에 유리한 법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상품 중심적인 관점에서 AI 산업 정책 시행을 강화하고, AI 산업 투자를 촉진하여 주요 지표에서 대만의 순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할 것이다.

「미래 대비도」는 국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만은 세계 3위를 기록하며 2024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기업의 기회 및 위협 대응 속도」(Opportunities and threats), 「기업의 빅데이터 및 분석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Use of big data and analytics), 「인터넷 소매업」(Internet retailing), 「새로운 도전에 대한 높은 유연성과 적응력」(Flexibility and adaptability), 「산학계 간 지식 이전 발전 및 개선」(Knowledge transfer), 「기업가 정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Entrepreneurial fear of failure), 「정부와 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Privacy protection by law exists) 등 다른 지표에서도 개선이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은 대만의 기업 민첩성 측면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반영하고, 정부의 민관 기술 협력 및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대만 국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발전부는 IMD 보고서에서 언급된 「여성 연구자 비율」(Female researchers)과 「대학생 대비 교사 비율」(Pupil-teacher ratio (tertiary education)) 등 취약한 지표들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 정책의 법제화 정도」(AI policies passed into law)와 관련하여, 디지털 발전부는 「데이터 혁신 및 활용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원에 검토를 위해 제출했다. 향후 「AI 기본법」의 3차 심의 및 통과와 발맞춰, 디지털 발전부는 가능한 한 빨리 「AI 위험 분류 체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본 부처는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AI의 영향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영문 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국제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AI 통치분야에서 대만의 노력과 성과를 널리 알릴 것이다.

향후 디지털 발전부는 디지털 개발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AI 산업 발전 촉진」(promoting AI industry development), 「사이버 보안 강화」(strengthening cyber security resilience), 「부정행위 방지 대책 시행」(implementing anti-fraud measures), 「디지털 정부 구축 강화」(enhancing digital government infrastructure)라는 네 가지 주요 축에 중점을 두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풍요로운 디지털 미래로 이끌어갈 것이다. (2025.11)

역주:

- 1) IMD 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를 지칭하며 국제경영개발원으로 번역하였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비영리 실무학교로, 상설 부속 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지난 1980 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 2) 디지털 발전부는 원문의 數位發展部에 대한 의역이다.

Attorneys-at-Law